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부모자녀관계, 자아강도, 학교생활적응, 자기조절학습능력,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정 수 정¹⁾

시흥 대야초등학교

최 나 야²⁾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영향 변인을 도출하고,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최적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설정한 4개의 가설모형에 대한 적합성을 분석하고, 최적 모델을 바탕으로 초등학생의 학업성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탐색하였다. G도 초등학교 4, 5, 6학년생 426명을 대상으로 하여 기말고사 성적을 학업성취도로 삼았고, 아동이 응답한 질문지 조사를 통해 부모자녀관계, 자아강도, 학교생활적응,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측정하였다. SPSS 21.0, AMOS 21.0 프로그램으로 Cronbach's α 계수, 왜도와 첨도를 구하고,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χ^2 차이검증, 구조회귀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의 긍정적 지지와 지원이 많을수록 아동의 자아강도가 강하고, 학교생활적응, 자기조절학습능력, 학업성취 수준도 모두 높았다. 둘째, 아동의 자아강도가 강할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하고, 학교생활적응을 잘할수록, 자기조절학습능력,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았다. 셋째, 부모자녀관계를 예측변인으로, 아동의 자아강도와 학교생활적응,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매개변인으로, 학업성취를 결과변인으로 설정한 연구모형은 모든 경로가 유의하고 모형적합도도 양호하였다. 결론적으로,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는 아동의 자아강도, 학교생활적응, 자기조절학습능력을 거쳐 학업성취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치므로, 두 변인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주요어 : 부모자녀관계, 자아강도, 학교생활적응, 자기조절학습능력, 학업성취, 구조적 관계

* 본 연구는 2017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을 확장시킨 것임.

1) 가톨릭대학교 생활문화학과 아동가족학 전공, 박사(경기 시흥 대야초등학교 사서)

2)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겸 생활과학연구소 겸무연구원 (E-mail: choinaya@snu.ac.kr)

I. 서 론

인간에게는 발달단계에 따른 발달과업이 있고 이를 성취한 정도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에 차이가 생긴다. 성인의 행복에 직업 성취도가 의미 있는 변인인(박영신, 김의철, 2009) 것처럼, 학령기 아동에게는 학업성취가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인 토양이 이러한 인식에 작용한다. 가정과 학교에서 학업성취를 크게 강조하면서 이 변인은 아동, 청소년의 행복감뿐만 아니라, 불행으로도 이어지곤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수준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학업스트레스도 매우 높은 실정이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아동기에서 초기 청소년기로 전환하는 시기로 사춘기가 시작되며 발달 관련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이 시기에는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측면에서 급격하고 동시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유안진, 한유진, 김진경, 2002; Brenner, 1984). 더구나 요즘의 초등학생들은 이러한 발달 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도 과열된 입시경쟁의 부담도 일찍 떠안게 되어 학업성취에 대한 스트레스도 매우 높다(김경숙, 2003; 조운주, 201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에서 응답자의 69.3%가 학업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보고하여(김영지, 김경준, 최윤희, 유설희, 2013) 초등학생들에게도 학업이 스트레스의 주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 간에는 부적 상관이 보고된다(구경호, 김석우, 2014; 김용래, 김태은, 2004; 양애경, 조호제, 2009; 정주영, 2010; 조한익, 손선

경, 2011; Solomon, 2013; Talib & Zia-ur-rehman, 2012). 이는 어릴 때부터 학업성취가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기에서 초기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밝힌다면 이들의 행복을 증진하고, 가정과 학교에서의 지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매우 다양하게 탐색되어 왔다. 즉, 학업성취는 지능이나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업관련 변인, 개인적 환경 변인, 교육적 환경 변인 등의 영향을 받는다. 초기 청소년기의 학업성취는 개인 내적 요인과 개인 외적 요인, 외부 환경적 요인에 따라 변이가 크므로(Fujita & Diener, 2005) 이들의 학업성취에 대해 탐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오숙영(2012)은 가정환경, 학습환경, 교사 변수, 학생 개인의 인지능력과 정서능력 등을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꼽았다.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크게 학습자 개인 요인과 환경 요인으로 나누어 보면, 먼저 개인 요인으로는 지능, 자아존중감, 안녕감, 스트레스 수준, 학습동기 등이 있다(김선숙, 고미선, 2007; 이숙정, 2006; Gabre & Kumer, 2012; Kumari & Radhakanta, 2012). 이는 학습자와 관련되는 내적인 요소들을 아동이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 학업성취가 달라지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그리고 환경 요인으로는 부모-자녀관계, 가족배경,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 교사 애착, 교사 능력, 학습 집단 및 학급분위기, 학습풍토, 학교문화 등이 있다(구인회, 2003; 양애경, 조호제, 2009; Israel, Beaulieu,

& Hartless, 2001).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학업성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입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환경적,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변인을 골고루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

아동을 둘러싼 대표적 환경 변인으로는 부모와의 관계를 들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이 부모자녀관계가 다양한 변인들과 함께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절대적 영향을 보여주었다(김지자, 김인아, 안현미, 2001; 장신재, 양혜원, 2007; Culp, Schadle, Robinson, & Culp, 2000; Harris, 2002; Mantzicopoulos, 2003; Rosenzweig, 2000). 아동은 부모와 최초로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함으로써 사랑과 애착을 경험하고, 가치관을 내면화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므로, 부모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아동이 스스로 지각하는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것이 중요하다.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와의 관계보다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아동의 자아수용이 달라지고 다른 변인들에 더 직접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부모가 인식한 부모자녀관계는 자녀의 인식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이 학습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환경적 변인이므로, 다른 매개변인들을 통해 아동의 학업성취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측면에서 부모자녀관계를 아동의 학업성취와 연결시킬 수 있는 매개변인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의 견고한 자아강도 발달과 관련이 있다(Culp et al.,

2000; Harris, 2002). 자아강도란 자아의 통합적 기능의 세기를 말한다. 자아강도가 강할수록 고유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고 현실에 보다 적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김세영, 최나야, 2013). 자아강도는 학교생활 적응(문은식, 2015; 성선진, 2010; 이정운, 이경아, 2004; 장신재, 양혜원, 2007; 조성희, 김희수, 2016; Freeman, 2002; Harrison & Newirth, 1990; Markstrom & Marshall, 2007; Shaw, Keenan, & Vondra, 1994), 학업동기(정미라, 장영숙, 김순규, 2011), 자기조절능력(임선아, 2013a; 정미경, 2008), 또래관계 형성(조성희, 김희수, 2016) 등 학업과 일상 적응은 물론 성인기 이후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문은식, 강승호, 2008; 성선진, 2010; Freeman, 2002; Harrison & Newirth, 1990; Markstrom & Marshall, 2007; Shaw, Keenan, & Vondra, 1994). 따라서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자아강도를 통해 학업성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부모와 친밀하고 편안한 관계를 형성하고 부모를 존경하며 본받고자 하는 아동일수록 학교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한다(이정운, 이경아, 2004; 장신재, 양혜원, 2007). 학교생활적응이란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학교에서 겪는 모든 생활에서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송미령, 2005). 아동에게 학교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부모 이외의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를 통해 여러 가지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학습의 장이다(민동일, 2007). 즉,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은 폭넓은 인간관계와 다양한 사건을 통해 성장함을 보

여주는 사회적 변인이다. 학교생활적응은 이후 성인의 사회생활적응력을 높이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다(고성희, 임성택, 2010; Bahwell, Newcomb, & Bulowski, 1998). 학교에서의 생활 자체에 잘 적응한 아동이 학업성취에서도 우수한 경우가 대부분으로(김용래, 김태은, 2004; 성미향, 2006; 임선아, 2013a; 조한익, 2012; 2014; Chemers, Hu, & Garcia, 2001) 본 연구에서는 역시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통해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지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의 인지적 변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김지자, 김인아, 안현미(2001)는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관련됨을 보고하였다.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큰 설명력을 보이는 인지적, 정의적 요인으로, 학습자가 학습활동의 주인이 되어 학습 목표와 학습 동기를 진단하고, 학습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관리하며, 학습의 모든 과정에서 의사 결정과 행위의 주체가 되는 능력을 의미한다(정미경, 2008).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습과정에서 학습자의 적극적인 태도와 책임성을 강조하는 개념인데, 학생의 이러한 능력은 학교교육 이전에 가정교육에서 그 바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김지자, 김인아, 안현미, 2001).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있는 아동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게 되고(강은영, 2008; 윤채영, 이종화, 김정섭, 2011; 이명조, 김소아, 2009), 자기조절학습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아동이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를 보인다(박현정, 2005; 양명희, 황정규, 2002; 오숙영, 2012; 이명조, 이소아, 2009; Pinitrich & Groot, 1990).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을 거쳐 학업성취로 이어지는 모형의 설계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초등학교 아동의 건강한 자아발달과 원만한 학교생활적응 및 우수한 자기조절학습능력은 가정에서부터 비롯되며, 부모자녀관계가 좋을수록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발달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변인을 거쳐 학업성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학업성취 관련 연구들은 주로 중·고생 또는 대학생에 집중되어 왔지만, 아동의 행복과 이른 시기부터의 교육적 지원을 위하여 초등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주로 부모자녀관계, 자아강도, 학교생활적응,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포함한 여러 변인들과의 관계를 단편적으로만 살펴보았다. 다양한 변인들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지, 인과적 관계 속에 경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동의 환경적,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변인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특히 가설로서의 모형 비교를 통해 가장 합당한 경로모형을 찾아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경험적 정보가 부족한 초등학교 아동의 부모자녀관계, 자아강도, 학교생활적응, 자기조절학습능력, 학업성취를 살펴보고, 이 변인들 간에 어떤 구조적 관계가 있는지 알아냄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행복을 위해 어떠한 양육 및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표 1. 각 연구모형에 대한 연구가설

순	가설	선행연구	모형			
			1	2	3	4
H1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부모자녀관계는 자아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임선아(2013a), 임선아(2013b), 황성동, 박은혜(2010), Culp, Schadle, Robinson, & Culp(2000) Harris(2002), 이정운, 이경아(2004), 장신재, 양혜원(2007), 조성희, 김희수(2016), 황성동, 박은혜(2010), Freeman(2002), Harrison & Newirth(1990), Markstrom & Marshall(2007), Shaw, Keenan, & Vondra(1994)	○	○	○	○
H2	초등학생의 부모자녀관계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Freeman(2002), Harrison & Newirth(1990), Markstrom & Marshall(2007), Shaw, Keenan, & Vondra(1994)	○	○	○	○
H3	초등학생의 부모자녀관계는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지자, 김인아, 안현미(2001), 박영태, 현정숙(1997)	○	○	○	×
H4	초등학생의 긍정적 부모자녀관계는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지자, 김인아, 안현미(2001), 장신재, 양혜원(2007), Coleman(1988), Coleman(1990), Culp, Schadle, Robinson, & Culp(2000), Harris(2002), Mantzicopoulos(2003), Rosenzweig(2000)	○	×	×	×
H5	초등학생의 자아강도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도금혜(2008), 이정운, 이경아(2004), Freeman(2002), Harrison & Newirth(1990), Markstrom & Marshall(2007), Shaw, Keenan, & Vondra(1994)	○	○	○	○
H6	초등학생의 자아강도는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임선아(2013b), 주희진(2011), Zimmerman(1986)	○	○	×	×
H7	초등학생의 자아강도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중운, 김효은(2012), 박영신 등(2000), 박현진(2003), 이경화, 정혜영(2006), 조수정(2003)	○	×	×	×
H8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영환, 황신혜(2013)	○	○	○	○
H9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광혁(2009), 김용래, 김태은(2004), 성미향(2006), 이봉주, 김광혁(2009), 조한익(2012), 조한익(2014), Chemers, Hu, & Garcia(2001)	○	×	×	×
H10	초등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병상(2009), 소연희(2011), 오금석(2003), 임선아(2013a), 정미경(2008), 정정옥, 강문희(1996), 주희진(2011), Pinitrich & Groot(1990),	○	○	○	○

선행 연구 및 문헌 검토를 통하여 가설적 모형들을 구안하여 초등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기초로 하여 자아강도, 학교생활적응,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매개변인, 학업성취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 네 변인이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위에서 고찰한 것처럼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실증되었으므로,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모형화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에 기반한 구체적인 가설적 경로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선행연구결과들과 이론을 토대로 설정한 네 가지 가설모형을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설모형 1은 ‘부모자녀관계→자아강도’;

‘부모자녀관계→학교생활적응’, ‘부모자녀관계→자기조절학습능력’, ‘부모자녀관계→학업성취’, ‘자아강도→학교생활적응’, ‘자아강도→자기조절학습능력’, ‘자아강도→학업성취’, ‘학교생활적응→자기조절학습능력’, ‘학교생활적응→학업성취’, ‘자기조절학습능력→학업성취’ 등의 경로를 설정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는 자아강도, 학교생활적응, 자기조절학습능력 변인을 통해 학업성취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문병상, 2009; 이봉주, 김광혁, 2009; 임선아, 2013a; 조한익, 2012; 주희진, 2011)을 토대로 설정하였다. 가설모형 2는 ‘부모자녀관계→학업성취’ 간, ‘자아강도→학업성취’, ‘학교생활적응→학업성취’ 간의 경로를 삭제하여 학업성취와 부모자녀관계, 자아강도,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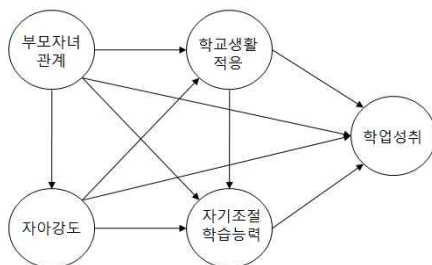


그림 1. 가설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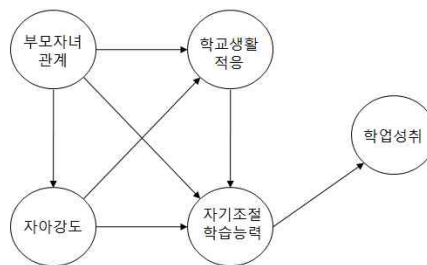


그림 2. 가설모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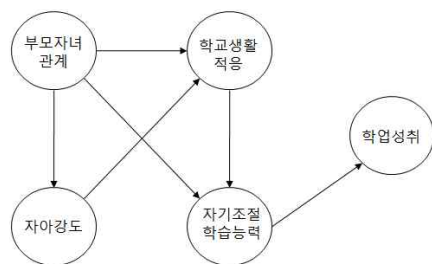


그림 3. 가설모형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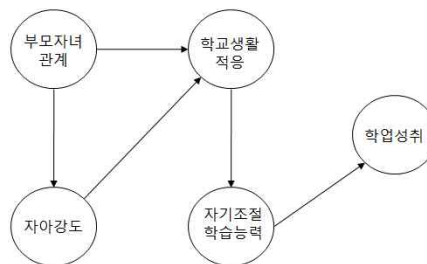


그림 4. 가설모형 4

였다. 가설모형 3은 ‘부모자녀관계→학업성취’ 간, ‘자아강도→학업성취’, ‘학교생활적응→학업성취’, ‘자아강도→자기조절학습능력’ 간의 경로를 삭제하여 부모자녀관계가 학업성취에, 자아강도가 학업성취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학교생활적응이 학업성취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설모형 4는 가설모형 3에서 ‘부모자녀관계→자기조절학습능력’ 간의 경로를 삭제하여 부모자녀관계가 자기조절학습능력과 학업성취에, 자아강도가 학업성취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학교생활적응이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네 가지 가설모형은 그림 1~4와 다음과 같다.

이상의 가설 검증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부모자녀관계, 자아강도, 학교생활적응, 자기조절학습능력, 학업성취 간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등학교 고학년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자아강도, 학교생활적응,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학업성취 간의 관계모형들 중 가장 적합한 모형은 어떠한가, 각 독립변인들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직, 간접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경기도에 위치한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 42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

표 2.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 = 426)

변인	구분	n(%)
성별	남	209(49.1)
	여	217(50.9)
학년	4	134(31.5)
	5	126(29.6)
	6	166(39.0)

하는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는 자신의 행동이나 마음의 상태를 스스로 진술하도록 하는 형태로, 응답자가 문항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측정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행동이나 마음 상태를 인지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자아기능에 대한 인식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 데 무리가 없는 시기는 만 8세, 즉, 초등학교 3학년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안현의, 박창규, 2006; Eccles, 1993; Harter, 1985). 이에 따라 연구대상을 고학년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표 2와 같다. 6학년 166명(39.0%), 4학년 134명(31.5%), 5학년 126명(29.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학생 209명(49.1%), 여학생 217명(50.9%)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2. 연구 도구

학업성취

학업성취 자료로 학생들의 1학기 기말고사 점수를 활용하였다. 초등교육과정 학년별 성취도 평가 과목을 적용하여 국어, 수학, 사회, 과학 4개 과목 점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와 학년별 시험문항 및 난이도 차이를 보정하

기 위하여 성적 원점수를 백분위 점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기조절학습능력

이재경(2000)의 '초등학생용 자기주도적 학습력 검사'를 이진영(2013)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이재경의 검사는 양명희(2000)가 개발한 '고등학생용 자기조절 측정도구'를 초등학생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검사의 하위요인은 1, 2차로 구분되어, 인지조절(인지전략, 메타인지), 동기조절(숙달목적지향성, 자아효능감, 성취가치), 행동조절(행동통제, 학업시간관리, 도움구하기)로 이루어져 있다. 4점 Likert식 척도로 된 47문항의 자기보고식 검사로, 문항 내적 일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인지조절 .88, 동기조절 .91, 행동조절 .91, 전체 .94로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

이규미와 김명식(2008)이 개발한 척도를 은선경(2009)이 수정·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학교공부(학업유능감, 학업가치), 학교친구(긍정적인 친구관계, 친구와의 상호협조성), 학교교사(교사에 대한 호감, 친밀감), 학교생활(질서와 규칙준수,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4개 차원, 총 8개의 하위요인, 38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항상 그렇다'까지 자기보고식 Likert식 4점 척도로, 총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함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는 학교공부 .82, 학교친구 .87, 학교교사 .91,

학교생활 .88, 전체 .94로 높았다.

자아강도

김세영(2012)이 개발한 '아동 자아강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유능성(7문항), 주도성(7문항), 탄력성(6문항), 사회성(6문항)으로 4개의 하위영역의 2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역시 자기 보고식 Likert식 4점 척도로,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강도가 강함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는 유능성 .91, 주도성 .87, 탄력성 .87, 사회성 .88, 전체 .95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부모자녀관계

이미경과 김성희(2011)가 개발한 초등학생용 부모자녀관계 척도 중 긍정적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는 하위영역인 친밀·지지 10문항, 허용·지원 4문항, 총 14문항을 사용하였다. 친밀·지지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애정표현 및 친밀한 행동을 하는 것과 부모와 자녀 간에 언어적으로 주고받는 교류방식 및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고, 허용·지원은 아동이 원하는 것을 부모가 잘 공급해주고 아동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행동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말한다. 응답의 중간 집중 경향을 피하기 위해 5점 척도를 4점 Likert식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긍정적 지원이 많고 부모-자녀관계가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 Cronbach's α 는 친밀·지지 .92, 허용·지원 .79, 전체 .92로 높게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본 조사에 앞서 선정된 검사도구 척도의 문항 내용이나 응답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그 적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대상이 아닌 각 학년 아동 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시 후 설문지의 문항에 대한 이해, 문항 내용에서 의미가 모호한 문항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후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등을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조사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2주간 각 교실에서 실시하였다. 학급별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검사방법 및 유의사항을 설명한 후,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먼저 대상 아동들에게 시험이 아니라고 알려주면서 검사의 취지와 진행방법을 설명하였다. 그 뒤 학교생활적응, 부모-자녀관계, 자아강도, 자기조절학습능력 순으로 질문지 조사를 차례로 실시하였다. 검사문항을 조용히 묵독하게 한 후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일치하는 보기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예비조사 시에 조사되었던 이해가 어려운 문항, 문항 내용에서 의미가 모호한 문항 부분은 부연설명을 하였다. 검사 소요시간은 학교생활적응 약 15분, 부모-자녀관계 약 10분, 자아강도 약 10분, 자기조절학습능력 약 10분으로, 개인차에 따라 전체 약 40-50분 정도 소요되었다. 질문지 회수 시 누락되거나 중복 체크된 문항이 없는지 파악하여 누락, 중복된 답변이 없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개인정보 누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름이나 개인적 정보를 제외하고 학생들의 세 가지 검사결과와 일치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는 번호와 이에 해당하는 점수만을 수집하

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42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4. 자료 분석

SPSS 21.0, AMOS 21.0 프로그램으로 빈도 분석,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다변량 정규분포성에 대한 가정여부와 변인 간 유의한 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해 변인별 왜도와 첨도 및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변량정규분포성과 변인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단계 접근법에 따라 1단계로 변인 간의 측정모형 적합도 검증과 구성개념신뢰도 및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 실시 전 각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한 연구모형들을 설정한 후, 최종모형을 도출하기 위하여 nest-nested 모델비교를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2단계로 최종모형의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여 경로계수의 직, 간접 효과를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부모자녀관계와 학업성취 관계에서 자아강도, 학교생활적응,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전체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AMOS를 이용한 bootstrapping과 다중매개모형의 개별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 위해 Mplus 7.0 프로그램을 이용한 가상변인(phantom variable)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기초통계 및 변인 간 상관관계 검증

표 3에 따르면 하위 요인 수준에서 측정변수들의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는 왜도와 첨도 결과는 양호하게 나타났다. 변인 간 상관은 $r = .73(p < .001)$ 에서부터 $r = .10(p < .05)$ 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관계와 학업성취($r = .13, p < .01 \sim r = .22, p < .001$), 자아강도와 학업성취($r = .13, p < .01 \sim r = .23, p < .001$),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성취($r = .10, p < .05 \sim r = .30, p < .001$), 자기조절학습능력과 학업성취($r = .23 \sim .39, p < .001$) 간에 모두 정적 상관이 있었다. 자아강도와 학교생활적응($r = .35 \sim .69, p < .001$), 자아강도와 자기조절학습능력($r = .30 \sim .42, p < .001$), 학교생활적응과 자기조절학습능력($r = .37 \sim .58, p < .001$) 간에는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 가장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인 변인들은 자아강도와 학교생활적응 간이었다.

학업성취와 각 변인의 모든 하위요인 간에도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r = .10, p < .05 \sim r = .39, p < .001$). 학업성취와 부모자녀관계의 친밀·지지($r = .15, p < .01 \sim r = .22, p < .001$), 자아강도의 사회성($r = .15, p < .01 \sim r = .23, p < .001$), 학교생활적응의 학교친구($r = .23 \sim .30, p < .001$),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인지조절($r = .33 \sim .39, p < .001$) 간에 더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학업성취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변인은 동기조절($r = .33 \sim .39, p < .001$)이었다.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이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자아강도가 강하고, 자아강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 하며,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을수록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뛰어나며,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정규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첨도와 왜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측정변인들의 왜도는 3.0이하이고 첨도는 7.0이하의 기준으로 나타나, 다변량정규분포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문수백, 2009). 따라서 이 자료는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분석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ML(maximum likelihood)의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1) 측정모형 적합도 및 수렴-판별타당도 검증

이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의 구성개념이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Kline(2011)이 제안한 2단계 접근법에 따라 구조모형의 경로를 탐색하기에 앞서,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측정모형의 적합도 및 수렴·변별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측정모형적합도 지수는 CFI = .95, TLI = .93, NFI = .92, SRMR = .05, RMSEA = .07으로 나타나, Hu와 Bentler(1999)의 측정모형적합도 권장지수에 따라 이 연구의 측정모형은 구조모형을 분석하기에 적합하였다.

수렴타당도는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이 학교교사 .67, 국어성적 .65, 수학성적 .68을 제외하고 모두 0.7이상이고($p < .001$), 구성개념신

표 4. 측정모델 적합도 및 수렴-판별 타당도 검증 결과

(N = 426)

parameter		표준화된 계수	C.R.	AVE	상관계수(제공)
부모자녀관계 (A)	→ 친밀 · 지지	.87***(.75)	.80	.66	
	허용 · 지원	.76***(.57)			
자아강도 (B)	→ 유능성	.82***(.66)	.89	.67	A & B = .70(.49)
	주도성	.84***(.71)			A & C = .68(.46)
	탄력성	.78***(.62)			A & D = .54(.29)
	사회성	.83***(.69)			A & E = .23(.06)
학교생활적응 (C)	→ 학교공부	.77***(.59)	.83	.55	B & C = .81(.66)
	학교친구	.72***(.52)			B & D = .54(.29)
	학교교사	.67***(.45)			B & E = .24(.06)
	학교생활	.79***(.63)			
자기조절 학습능력 (D)	→ 인지조절	.85***(.68)	.87	.69	C & D = .72(.52)
	동기조절	.89***(.78)			C & E = .35(.13)
	행동조절	.78***(.61)			
학업성취 (E)	→ 국어성적	.65***(.42)	.84	.57	D & E = .46(.21)
	수학성적	.68***(.46)			
	사회성적	.83***(.69)			
	과학성적	.85***(.72)			

주. $\chi^2 = 335.36(p < .001)$, RMSEA = .07, CFI = .95, TLI = .93, NFI = .92, SRMR = .05*** $p < .001$.

회도(C.R)는 .80~.89로 0.7보다 크고, 평균분산 추출(AVE)도 .55~.69로 0.5보다 커서 좋은 신뢰성을 보이고 있다. 판별타당도 검증을 통해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표 3의 분석 결과 각 구성개념의 평균분산추출 값이 상관계수 제공보다 상회하였으므로 판별타당성 역시 검증할 수 있었다.

2) 모형비교 및 최종모형의 채택

2단계 구조회귀모형 검증에 앞서 연구자

가 상정한 4가지 연구모형들 중 가장 좋은 최종모형을 채택하기 위하여 모형비교(model comparison)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가 도출한 4가지 모형들이 동일한 측정변수와 동일한 잠재변수를 가지고 있으며 경로의 수가 다른 모형 간 비교를 통해 통계적으로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구조방정식 분석에서 χ^2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매우 적합한 모형이지만, χ^2 값은 표본 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χ^2 값이 통계적으

표 5. 모델 비교

	χ^2	df	CFI	TLI	NFI	SRMR	RMSEA
Model 1	335.36	109	.95	.93	.92	.05	.07
Model 2	336.03	112	.95	.93	.92	.05	.07
Model 3	339.63	113	.95	.93	.92	.05	.07
Model 4	341.24	114	.94	.93	.92	.05	.07
SCDT	Model 1 vs Model 2 : $\Delta\chi^2 = 0.67$, $\Delta df = 3$, $p = 0.8802$						
	Model 1 vs Model 3 : $\Delta\chi^2 = 4.27$, $\Delta df = 4$, $p = 0.3711$						
	Model 1 vs Model 4 : $\Delta\chi^2 = 5.88$, $\Delta df = 5$, $p = 0.3179$						
	Model 2 vs Model 3 : $\Delta\chi^2 = 3.59$, $\Delta df = 1$, $p = 0.0579$						
	Model 2 vs Model 4 : $\Delta\chi^2 = 5.21$, $\Delta df = 2$, $p = 0.0738$						
	Model 3 vs Model 4 : $\Delta\chi^2 = 1.62$, $\Delta df = 1$, $p = 0.2038$						

로 유의하더라도 CFI, TLI, NFI가 .90이상이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RMSEA가 .08보다 작으면 양호한 모형으로 해석한다고 하였다 (MacCallum, Browne, & Sugawara, 1996). 이 연구에서 대표적인 적합도지수인 CFI, TLI, NFI가 모두 .90보다 높게 나타났고, RMSEA는 .07, SRMR은 .05로 4가지 모형 모두 수용 가능한 모형적합도가 나타났으므로, 4가지 모형비교를 통하여 최종모형을 채택하기 위하여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χ^2 차이검증(sequential chi-square difference test, SCDT)이란 자유도의 변화에 따른 χ^2 값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평가하는 것으로, 간명성을 나타내는 '자유도 손실'에 따라서 설명력을 나타내는 χ^2 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는가를 검증하는 방법이며, 이것은 모형이 개선되는 것을 말한다. 자유도는 모형이 간명도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자유도가 큰 모형이 훨씬 더 간명하다. 따라서 자유도 상실(모수의 추가)에도 불구하고 모형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하지 않았다면 자유도가 더 큰 모형을 선택해야 한다.

이 연구의 가설모형 1은 $\chi^2 = 335.36$, $df = 109$, 가설모형 2의 $\chi^2 = 336.03$, $df = 112$, 가설모형 3의 $\chi^2 = 339.63$, $df = 113$, 가설모형 4의 $\chi^2 = 341.24$, $df = 114$ 로 χ^2 값을 모형별로 비교한 결과, 가설모형 1의 χ^2 값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가설모형 2, 3, 4의 비교에서 χ^2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모형 개선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설모형 2, 3, 4의 χ^2 를 상호 비교한 결과, 3가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df 값이 가장 큰 가설모형 4가 가장 간명한 모형으로 판단되어 최종모형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최종모형 그림 5는 긍정적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자아강도와 학교생활적응을 가늠하는 변수로써 아동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생활적응은 학업 동기와 성취 목표를 고양시켜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학업에 참여하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끌어낼 것이고, 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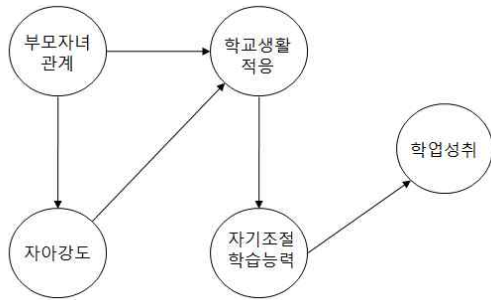


그림 5. 최종 채택 모형

조절학습능력은 학업성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로 연구모형을 설정한 것이다.

3) 최종모형의 검증

가설에 따라 설정된 연구모형들 중 모수치 추정된 결과와 표준화 회귀계수로 구성된 최종모형의 각 변인들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그림 6에 제시하였다. 구조회귀모형의 모든 적합도 지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인 간 관계에서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살펴보면, 긍정적 부모자녀관계는 자아강도를 49.3% 설명하며, 학교생활적응은 67.2%, 자기조절학습능력은 51.3%, 학업성취도는 21.5%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자녀관계가 자아강도, 학교생활적응을 매개로 자기조절학습능력과 학업 성적에 주는 직, 간접 효과와 총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그림 6과 같다. 학업성취에 총 효과가 가장 큰 변인은 자기조절학습능력($\beta = .46, p < .001$)이고, 그 다음 학교생활적응($\beta = .33, p < .01$), 부모자녀관계($\beta = .23, p < .01$), 자아강도($\beta = .21, p < .001$) 순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총 효과가 가장 큰 변인은 학

표 6. 모델 적합도 및 주요 변인들 간의 경로 분석 결과

(N = 426)

Parameter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모자녀관계	→ 자아강도	.70***	-	.70**
	→ 학교생활적응	.25***	.44**	.69**
	→ 자기조절학습능력	-	.49**	.49**
	→ 학업성취	-	.23**	.23**
자아강도	→ 학교생활적응	.63***	-	.63**
	→ 자기조절학습능력	-	.45**	.45**
	→ 학업성취	-	.21**	.21**
학교생활적응	→ 자기조절학습능력	.72***	-	.72**
	→ 학업성취	-	.33**	.33**
자기조절학습능력	→ 학업성취	.46***	-	.46**

주 1. SMC: 자아강도 = .49, 학교생활적응 = .67, 자기조절학습능력 = .51, 학업성취 = .22

주 2. $\chi^2 = 341.24(p < .001)$, RMSEA = .07, CFI = .94, TLI = .93, NFI = .92, SRMR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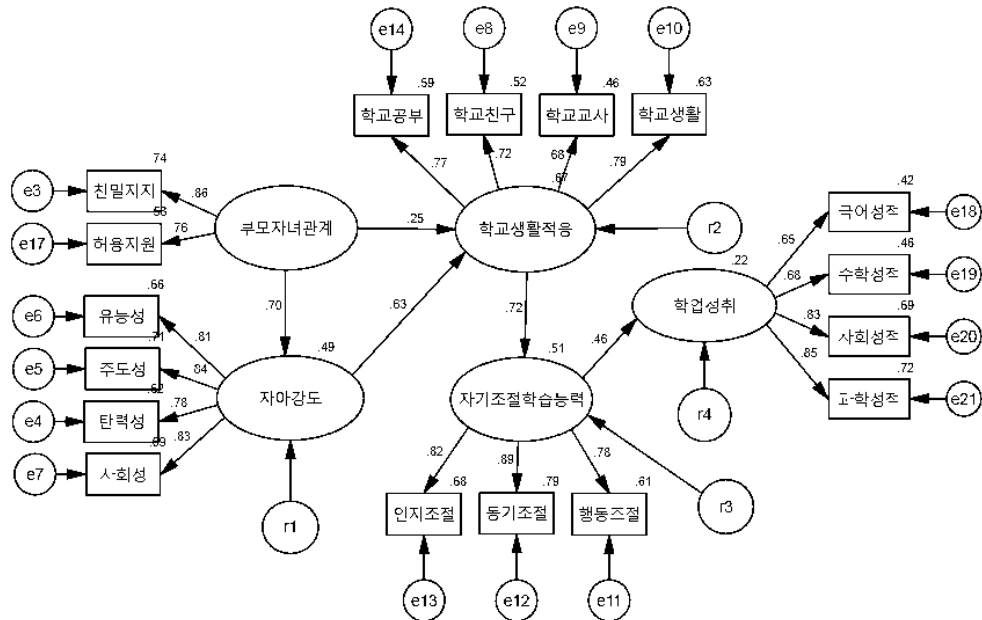


그림 6. 최종모형의 경로 분석 결과

** $p < .01$. *** $p < .001$.

교생활적응($\beta = .72, p < .001$)이며, 그 다음으로 부모자녀관계($\beta = .49, p < .01$), 자아강도($\beta = .45, p < .01$)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에 직접 효과가 있는 변인은 자기조절학습능력($\beta = .46, p < .001$)이며,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직접효과가 있는 변인은 학교생활적응($\beta = .72, p < .001$), 학교생활에 직접 효과가 가장 큰 변인은 자아강도($\beta = .63, p < .001$)이며, 그 다음이 부모자녀관계($\beta = .25, p < .001$)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관계는 자녀의 자아강도에 직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70, p < .001$).

이를 정리하면 첫째, 초등학교생의 부모자녀관계는 자아강도, 학교생활적응 간에 유의한 경로가 발견되었다. 즉, 초등학교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자아강도가 강하

고,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등학교생의 자아강도가 강할수록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초등학교생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초등학교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좋을수록 학업성취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고학년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초등학교생의 자아강도가 높고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며, 초등학교생의 자아강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학교생활적응을 잘할수록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우수하며,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업성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각 잠재변인의 간접적인 영향을

표 7. 개별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N = 426)

간접경로	B	95% CI	
		lower 2.5%	upper 2.5%
부모자녀관계 → 학교생활적응 → 자기조절학습능력 → 학업성취 (A)	.85*	.27	1.79
부모자녀관계 → 자아강도 → 학교생활적응 → 자기조절학습능력 → 학업성취 (B)	1.81*	.94	3.26
Contrast (A-B)	-.96	-2.46	-.17
Contrast (B-A)	.96	.00	2.46

주. 95% 신뢰구간 안에 0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면 추정값이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표시하였음.

* $p < .05$.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부모자녀관계는 학교생활적응($\beta = .44, p < .001$), 부모자녀관계와 자기조절학습능력($\beta = .49, p < .01$), 학업성취간($\beta = .23, p < .01$)에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등학생의 자아강도는 자기조절학습능력($\beta = .45, p < .01$)과 학업성취($\beta = .21, p < .01$),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성취($\beta = .21, p < .01$)에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부모자녀관계는 자아강도와 학교생활적응, 자기조절학습능력을 거쳐 학업성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부모자녀관계는 학교생활적응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 부모자녀관계가 자기조절학습능력과 학업성취 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나, 자아강도와 학교생활적응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매개로 하여 학업성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추가적으로 다중매개모형의 개별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Mplus 7.0

프로그램을 이용한 Phantom 변수를 사용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bootstrapping을 이용해 추정한 95% 신뢰구간(CI; confidence intervals)에서 2,000회 반복 추출한 표본으로부터 간접효과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도출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와 학업성취도 간에는 부모자녀관계가 학교생활적응,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매개한 학업성취에 미치는 간접효과($B = .85, p < .05$)가 나타났고, 자아강도, 학교생활적응,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간접효과($B = 1.81, p < .05$)가 나타났다. 간접효과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 두 경로가 모두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유의한 경로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 관계성

에 대한 최적의 모형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변인들이 초등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와 이론들을 토대로 각 예측변인들과 학업성취 간의 네 가지 구조적 모형을 설정하여 모델비교를 통해 최적 모형을 채택하였다. 최종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더불어 각 예측변인들의 직, 간접적인 영향력과 간접효과의 유의미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관계, 자아강도, 학교생활적응, 자기조절학습능력, 학업성취 간에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그 중 학업성취와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인 변인은 자기조절학습능력이었으며,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교생활적응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하위요인 수준에서 살펴보면, 자기조절학습능력 중 숙달목적지향성, 자아효능감, 성취가치를 포함한 동기조절이 학업성취와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초등학교시기에 인지적 전략보다는 동기적 요인이 더 중요함을 보여준다. 학교생활적응 요인 중 학업유능감과 학업에 대한 가치가 더 높은 상관을 보인 결과도 같은 맥락이다. 다음으로, 학업성취와 부모자녀관계 간에 친밀·지지와 허용·지원 모두 높은 상관을 보였지만 그 중 아동이 원하는 것을 부모가 잘 공급해주고 아동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보다 애정표현, 친밀한 행동, 언어적 소통 및 교류방식 등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친밀·지지가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자녀관계에서 정서적 지지의 중요성을 보여준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상관 분석 결과는 초등학교시기의 학

업성취를 위해서는 학생의 학습전략이나 기능, 지적 잠재력보다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긍정적 자아개념, 학습가치에 대한 인식, 동기부여 등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둘째, 네 가지 가설모형을 비교한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는 학교생활적응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자아강도와 학교생활적응, 자기조절학습능력을 거쳐 간접적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자아강도는 학교생활적응,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학교생활적응은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쳤다.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직접적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이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설정되었다. 선행연구들은 학교생활적응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성미향, 2006), 학업성취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신재철, 1995; 임경혁, 1994), 그리고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성취 간의 상호 관련성(조한익, 2012)을 모두 보여준 바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설정에 따라 초점을 달리 했고, 두 변인 간의 단순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라는 분석의 틀에 머무른 데에서 더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이라는 매개변인을 찾아낸 의미를 갖는다. 또한 박현정(2005)은 자기조절학습능력이 학업성취에 직접적 영향이 있다고 보고한 반면, 이지혜(2010)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성격유형, 인지적 전략, 학습몰입 등과 같은 변인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소연희(2011)는 직, 간접적 영향을 모두 발견하여 두 변인 간의 관

계에 논란이 있었다. 자기조절학습능력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 세밀한 모형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부모자녀관계, 자아강도, 학교생활적응, 자기조절학습능력은 모두 직, 간접적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인지적 변인인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업성취에 직접적이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자녀관계, 자아강도, 학교생활적응의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초등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이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문병상, 2009; 양애경, 조호제, 2010; 정미경, 2008)과 일치한다. 다음으로 학업성취에 간접적 영향을 주는 변인은 영향력 순으로 학교생활적응, 부모자녀관계, 자아강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양육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조절학습능력은 그 자체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환경적(관계적) 자원인 부모자녀관계와 심리적 자원인 자아강도, 사회적 자원인 학교생활적응의 영향을 받아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사교육 확대로 인한 경제적, 관계적, 정서적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입력만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내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아동 자신의 태도가 중요함을 엿볼 수 있는 결과이다. 이에 따라,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자체를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제기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아동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자기조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활동의 개발이나 효과 검증, 자기주도적 학습활동을 통한 학업성취를 검증하였으나 앞으로는 아동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지하는 본질적 요인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아동 개인의 내면적 요인 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한 가정과 학교 내의 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의 중요성과 역할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는 자아강도, 학교생활적응, 자기조절학습능력 또는 학교생활적응,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었다. 이 결과는 아동의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적 개입 방안보다 아동과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에 있는 부모자녀관계에서부터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적절한 관심과 제재, 그리고 애정 어린 태도로써 대하고, 언어적 소통방식과 교류방식, 정서적 지지 등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더 나아가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강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학업성취라는 목표를 떠나서 바라볼 만한 부분이다. 온 사회가 학업적 성과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아동의 안녕과 주관적 행복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지지해주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동의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교사, 또래, 학교규칙, 학교생활 측면에서 잘 적응하는 것, 그리고 학습에 대한 관심과 흥미, 동기를 가지고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결

과를 분석하는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부모자녀관계와 한국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연구(박영신, 김의철, 2009)에서도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자녀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가운데, 특히 어린 초등학생이 그에 더 민감함을 보여준 바 있다. 즉, 원만한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삶 전반을 좌우하는 뿌리이자 기둥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이 연구를 통해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자아강도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 영향을 주고 학교생활적응은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매개하여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부모의 역할이 아동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변수로써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생활적응은 학업 동기와 성취 목표를 고양시켜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업에 참여하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이끌어 내었다. 이와 같이 부모자녀와의 긍정적 상호작용과정에서 형성된 긍정된 자아는 결국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의 부재나 저소득층 가정 아동, 한부모 가정 아동 등 빈곤가정이나 결손가정의 아동에게 부모의 역할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부모세대의 빈곤과 결손이 자녀세대로 연결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을 포함한 학교에서의 사회복지적 교육프로그램의 주요한 개입 영역은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 향상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개입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학령기의 학업성취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시점에서, 발달적 과도기에 있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의 학업성취를 살펴보았다는 의의를 갖는다. 또한 이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환경적,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측면에서 고르게 포함하여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최적의 모형을 찾아낸 점도 중요하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지닌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의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학년 간의 차이는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학년 간 변인의 차이 또는 변인 간 구조적 관계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다집단 차이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연구방법론의 마련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을 조사할 수 있다면 발달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고학년이 중·고생이 될 때까지의 종단적 연구도 가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이 연구는 초등학교 한 곳에서 자료수집이 이루어진 것은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점이 있다. 추후 여러 학교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확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주양육자를 부모로 하여 부모자녀관계와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후 상대적으로 소외된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 가장의 사회적 지지와 학업성취 간의 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부모의 정서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의 자아강도,

학교생활적응, 자기조절학습능력을 거쳐 학업 성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의미 있는 요인이다. 따라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역할훈련 및 자녀와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가정과 교육현장에서는 아동의 학업성취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강은영 (2008). 자기주도학습력과 스트레스대처 방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성희, 임성택 (2010). 한국형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41(1), 45-64.
- 구경호, 김석우 (2014).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학업탄력성과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8), 69-89.
- 권인희 (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족구조와 가족소득,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2, 5-32.
- 김경숙 (2003). 아동의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통제감 및 대처행동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숙, 고미선 (2007). 청소년의 학업성취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청소년연구, 18(3), 5-29.
- 김세영 (2012). 아동의 자아강도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세영, 최나야 (2013). 아동 자아강도 척도의 타당화 및 기준 연구. 아동과 권리, 17(1), 1-27.
- 김영지, 김경준, 최윤희, 유설희 (2013). 201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용래, 김태은 (2004). 학습자 스트레스, 학교 적응(대처) 및 학업성적. 홍익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연구 논총, 21, 5-31.
- 김종운, 김효은 (2012).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와 학습몰입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1), 97-118.
- 김지자, 김인아, 안현미 (2001). 아동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주도 학습력과의 관계. 한국초등교육, 12(1), 177-209.
- 도금혜 (2008). 아버지 관련 변인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지, 17(5), 861-872.
- 문병상 (2009). 인식론적 신념, 성취목표지향성, 자기조절학습 및 학업성취 간의 관계. 초등교육연구, 22(4), 49-68.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문은식 (2015). 중학생의 또래애착,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22(1), 21-35.
- 문은식, 강승호 (2008). 고등학생의 심리적 안녕에 관련되는 사회·동기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22(1), 1-15.
- 민동일 (2007). 청소년의 가정건강성, 학교생활 건강성 및 자아탄력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영신, 김의철 (2009). 한국 청소년의 행복: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과 학업성취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3), 399-429.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 초·중·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 차이와 형성 및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0), 94-118.
- 박현정 (2005).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및 학습전략의 사용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 *한국교육*, 32(1), 203-222.
- 박현진 (2003).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미향 (2006). 초등학생의 성공지능과 학교생활 적응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진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선진 (2010).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관련요인의 인과적 관계 분석.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소연희 (2011). 학습자가 지각한 교사의 수업활동, 자기주도학습, 학습몰입 및 학업성취의 구조적인 관계분석. *아동교육*, 20(2), 19-32.
- 송미령 (2005). 부모의 정서적 방임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재철 (1995). 학교생활적응,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현의, 박창규 (2006). NEO 아동성격검사 검사요강. 서울: 한국가이던스.
- 양명희 (2000). 자기조절학습의 모형 탐색과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명희, 황정규 (2002). LISREL을 이용한 자기조절학습의 개념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16(2), 259-290.
- 양애경, 조호제 (2009). 중·고등학생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9(1), 341-358.
- 양애경, 조호제 (2010). 자기주도적 학습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한국교육논단*, 8(3), 81-82.
- 오금석 (2003). 초등학생의 자기조절학습, 학습양식, 학업성취도간의 관계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숙영 (2012). PLS 구조방정식을 모형을 활용한 부모 SES, 사교육, 자기조절학습능력, 학업성취 간의 관계 연구. *교육문제연구*, 42, 203-243.
- 유안진, 한유진, 김진경 (2002).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과 또래관계의 질. *아동학회지*, 23(3), 79-90.
- 윤채영, 이종화, 김정섭 (2011). 자기조절학습 프로그램이 중학교 신입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사고개발*, 7(2), 19-36.
- 은선경 (2010).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기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화, 정혜영 (2006). 아동의 학업성취 관련 변인의 인과적 구조분석. *아동학회지*, 27(3), 271-284.
- 이규미, 김명식 (2008). 중학생 학교 적응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화 연구.

-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1), 27-40.
- 이명조, 이소아 (2009). 교육심리학. 파주: 교문사.
- 이미경, 김성희 (2011). 초등학생 부모-자녀 관계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2(3), 997-1017.
- 이봉주, 김광혁 (2009). 학교생활이 즐거우면 성적도 오를까?: 학교만족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1(4), 287-306.
- 이숙정 (2006). 중, 고생의 교사신뢰와 자아존중감, 학습동기, 학업성취 및 학급풍토 간의 관계모형 검증. 교육심리연구, 20(1), 197-218.
- 이영환, 황신혜 (2013). 부모의 교육적 관여와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가 아동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17(3), 417-435.
- 이재경 (2000). 웹 기반 자기주도적 학습 모형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교육공학연구, 16(2), 83-106.
- 이정운, 이경아 (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61-276.
- 이진영 (2013). 독서상담 활용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학습몰입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혜 (2010).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메타인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학습몰입과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학연구, 48(2), 67-92.
- 임경혁 (1994). 학급환경, 학업성취,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선아 (2013a). 저소득층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기 자녀의 자기조절학습능력과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종단적 구조관계 검증. 아동과 권리, 17(2), 229-247.
- 임선아 (2013b). 민주적 부모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자존감, 학교적응에 미치는 구조모형 비교: 저소득층 아동 비저소득층 아동. 교육심리연구, 27(1), 125-142.
- 장신재, 양혜원 (2007). 부모-자녀관계, 우울 및 공격성과 학교적응 간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18(2), 5-29.
- 정미경 (2008).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자기조절학습 탐구.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 정미라, 장영숙, 김순규 (2011).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및 학습동기 간의 관계. 아동교육, 20(2), 221-234.
- 정정옥, 강문희 (1996). 자기조절학습이 정상아와 학습장애아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7(2), 141-161.
- 정주영 (2010).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적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16(1), 129-152.
- 조성희, 김희수, (2016). 초등 고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5), 355-376.
- 조수정 (2003).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사회성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윤주 (2010). 청소년초기 스트레스의 종단적

- 변화 양상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잠재 성장모형 분석. *인간발달연구*, 17(3), 17-35.
- 조한익 (2012).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취목표지향성, 희망 및 학습전략의 구조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3), 465-483.
- 조한익 (2014). 초등학교생의 학업·사회적 성취 목표지향성, 자기결정성, 학업성취도 및 학교생활적응의 구조적 관계 분석. *초등교육연구*, 27(4), 207-229.
- 조한익, 손선경 (2011).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자아개념을 매개로 한 부모학업비교행위와 학업성취 간의 경로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8(2), 1-21.
- 주희진 (2011). 초등학교생의 자기결정성 동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의 인과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1(2), 237-259.
- 황성동, 박은혜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4), 123-145.
-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 Brenner, A. (1984). *Helping children cope with stress*. MA: Health.
- Chemers, M. M., Hu, L., & Garcia, B. F. (2001). Academic self-efficacy and first year college student performance and adjust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3(1), 55-64.
- Culp, R. E., Schadle, S., Robinson, L., & Culp, A. M. (2000).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involvement and young children's perceived self-confidence and behavioral problem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9(1), 27-38.
- Eccles, J. (1993). School and family effects on the ontogeny of children's interests, self-perceptions, and activity choice. In J. Jacobs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92: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motivation* (pp. 145-208).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Freeman, M. D. (2002). *The contribution of faith and ego strength to the prediction of GPA among school students*.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 Fujita, F., & Diener, E. (2005). Life satisfaction set point: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158-164.
- Gabre, H., & Kumer, G. (2012). The effects of perceived stress and facebook on accounting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Accounting and Finance Research*, 1(2), 87-100.
- Harris, L. R. (2002). *Parent-child relationship quality and sixth-graders' social competence at schoo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CA.
- Harrison, R. H., & Newirth, J. (1990). The effect of sensory deprivation and ego strength on a measure of autistic thinking.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3-4), 694-703.
- Harter, S. (1985). *Manual for the self perception profile for adolescents*. University of Denver, Denver, CO.

- Hu, L. Y., & Bentler, P.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Israel, G. D., Beaulieu, L. J., & Hartless, G. (2001). The influence of family and community social capital on educational achievement. *Rural Sociology*, 66(1), 43-68.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Y: Guilford Press.
- Kumari, R., & Radhakanta, G. (2012).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of senior secondary school students. *Asian Journal of Multidimensional Research*, 1(3), 152-160.
- MacCallum, R. C., Browne, M. W., & Sugawara, H. M. (1996). Power analysis and determination of sample size for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Psychological Methods*, 1(2), 130-149.
- Mantzicopoulos, P. (2003). Flunking kindergarten after Head Start: An inquiry into the contribution of contextual and individual variabl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5(2), 268-278.
- Markstrom, C. A., & Marshall, S. K. (2007). The psychosocial inventory of ego strength: Examination of theory and psychometric properties. *Journal of Adolescence*, 30(1), 63-79.
- Pinitrich, P. R., & De Groot, E. V. (1990).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1), 33-40.
- Rosenzweig, C. J. (2000). A meta-analysis of parenting and school success: The role of parents in promoting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61(4), 16-36.
- Shaw, D. S., Keenan, K., & Vondra, J. I. (1994). Developmental precursors of antisocial behavior: Ages 1 to 3. *Developmental Psychology*, 30(3), 355-364.
- Solomon, O. (2013).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perceived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anchester Metropolitan University, Manchester.
- Talib, N., & Zia-ur-Rehman, M. (2012). Academic performance and perceived stress among university students. *Educational Research and Reviews*, 7(5), 127-132.
- Zimmerman, B. J. (1986). Becoming a self-regulated learner: Which are the key subprocesse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11, 307-313.
- 1 차원고접수 : 2017. 10. 10.
수정원고접수 : 2018. 02. 13.
최종게재결정 : 2018. 02. 22.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ent-Child Relationship, Ego Strength, School Adaptati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nd Academic Achievement

Jeong, Soo-Jeong¹⁾

Choi, Naya²⁾

¹⁾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Catholic University

²⁾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rive the factors of academic achieve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o establish an optimal model among those variables. We compared the fit of four hypothesized models based on previous studie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426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rade 4, 5 and 6. Their academic achievement was evaluated with their final exams. In addition, their parent-child relationship, ego strength, school adaptation, an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were measured using the questionnair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ore parents supported their child, the higher child's ego strength, school adaptati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nd academic achievement. Second, the stronger the child's ego, the higher their school adaptati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nd academic achievement level. Third, the better the child adapts to school, the better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nd academic achievement. Fourth, all the paths among the research model in which a parent-child relationship was a predictor, such as the child's ego strength, school adaptation, an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were mediators. Their academic achievement was significant, with a high goodness of fit. Parental support is a very significant factor affecting children's ego strength, school adaptati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nd academic achieve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a program that promotes parent-child relationships.

Keywords: parent-child relationship, ego strength, school adaptati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cademic achievement, structural relationship